

창조원 전시계획 착수도 못하고 1년째 답보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2〉 문화전당 개관 선결 과제

㉠ 콘텐츠 확충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9월4일 개관을 앞두고 있음에도 콘텐츠(공연·전시, 운영프로그램)가 전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개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관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인데도 일부 콘텐츠의 경우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2005년 첫삽을 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예술극장(1700석 규모), 어린이문화원, 정보원, 문화창조원 등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13만 4000여㎡ 부지에 16만 1000여㎡ 규모로, 건물 규모나 시설만 놓고 보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13만 7000여㎡)이나 예술의전당(12만 8000여㎡)을 압도한다.

지역 문화단체는 애초부터 이같은 초대형 시설을 채울 콘텐츠 구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건물만 지어놓고 콘텐츠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은 물론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외면하다 지난해 나마한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콘텐츠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지역 문화단체는 ‘상품을 갖춰놓지 않고 백화점 문을 여는 격’이라며 반발했으나, 이후 문화부는 미진한 콘텐츠 보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 진행중인 콘텐츠 구축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아시아문화개발원(개발원)이 최근 전문가들에 의뢰해 문화전당 전반을 진단한 결과, 문화창조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문화창조원은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현하는 전시공간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거점인 창·제작 센터로 구성된 공간이다.

창조원 전시공간인 복합 1.2관 공간구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실시설계

전시공간 설계도 못 끝내

예술극장 공연 작품 빈약

문화부 “단계적으로 보완”

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 등 제작에 착수하도록 돼 있으나, 실시 설계도면 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이는 전시물을 설치할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전시계획과 콘텐츠의 구체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콘텐츠 구축을 책임지는 예술감독의 공백도 콘텐츠 구축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 10일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감독과 계약을 해지한 뒤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을 총괄하고 있는 개발원 조직 자체도 직원들이 인사불만이 누적돼 업무 추진동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보직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인사성 밝고 처신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행태에 염증이 난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조직관리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은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굶어다가 업무성과로 제출하는 직원도 있다”며 “냉정한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조직을 세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도 신선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문화전당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아를 넘어낸 창작물이 눈에 띄지 않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시아 예술극장의 콘텐츠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별한 콘텐츠 없이 문화예술 최대 소비층인 수도권 주민들이 10만원에 육박하는 문화관람료를 지불하고 멀리 광주까지 내려올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문화전당의 총체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시계탑 30년만에 원래 자리로
지난 1980년대 중반 광주 서구 농성광장으로 옮겨졌던 ‘5·18 민주화운동 상징 시계탑’이 20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왔다. 시는 안내판 설치 등 시계탑 복원 공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7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계탑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차임별로 편곡해 매일 오후 5시18분에 종소리 3번→차임별→종소리 3번 순으로 울리도록 제작됐다.

광주시 산하기관 8곳 인사청문회

市-시의회 최종 합의…내달 공모 DJ센터 사장부터 적용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이 총 8개 기관으로 확정돼 이르면 2월 공모 절차가 시작되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0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협의를 갖고 공사·공단 4개 기관에다 출연기관 4개를 포함, 총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이며, 출연기관은 여성재단과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빛고를 노인복지재단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전은 4개 기관, 제주도는 5개 기관, 경기도는 6개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광주시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숫자다.

애초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놓고 광주시는 공사·공단 4곳에 출연기관 2곳(여성재단과 문화재단)을, 시의회는 공사·공단 4곳에 출연기관 4곳(여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빛고를노인복지재단)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 양측의 합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공

■ 광주시 인사청문 대상 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 도시공사	· 문화재단
· 도시철도공사	· 여성재단
· 환경관리공단	· 신용보증재단
· 김대중컨벤션센터	· 빛고를노인복지재단

약으로 내걸었던 윤장현 시장이 결단하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시와 시의회는 앞서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능력과 도덕성까지, 청문회 운영 방식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합의한 인사청문회안에 대해 내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2월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부터 인사청문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여성재단 대표이사 공모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의회 요구를 수용해 협상이 빠르게 이뤄졌다”면서 “연초 시와 시의회간 상생의 기류가 앞으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산하기관장도 인사청문회

명현관 도의회 의장 “이달내 협약 내달부터 시행”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협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대표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도 공기업인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명 의장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의견을 조율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명 의장은 “이달 내 전남도와 협약을 맺어 가급적 이르면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대상 기관은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근무인원 30명 이상 등 6~7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방식과 관련 명 의장은 “(기관장을 내정하고 나서)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해 상임위에서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상임위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이달 내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의하면 다음 달부터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전남도가 이에 따를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각 기관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기능이 상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연계 광주만의 ‘빛 브랜드’ 만들자 ㉠문화개발원 유지호 팀장 논문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빛(light)’을 주제로 광주와 문화전당을 연계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문화전당과 지역발전

문서사학위 논문(지도교수 강신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외관광마케팅 전략 연구’를 통해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의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인 만큼 광주의 도시 브랜드 전략과 맞물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팀장은 논문에서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빛’이고 문화전당은 광주를 상징하는 ‘빛의 숲’을 구

현한 공간”이라며 “빛을 컨셉으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엔날레, 김치축제, 월드뮤직페스티벌, 충장축제, 5·18기념행사 등의 축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빛 축제 창조브랜드’를 만들어 이런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거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과 먹을거리가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감옥을 개조해 만든 핀란드 헬싱키 카타저노카 호텔과 투우장을 호텔로 개조한 멕시코 ‘퀀타 레알 사카테카스’ 호텔처럼, 전일빌딩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교도소 등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논문은 문화전당 건립 및 변화과정 등을 시기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2015년 3월 1일(일) 08:30 출발

문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상무지구 끝인!!

풀코스, 하프코스 중심 대회!!

대회개요

1. 코 스
(1) 풀 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송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2)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2. 종 목 : 하프코스, 풀코스

신청 및 접수

1.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접수마감 : 2015년 2월 5일(목)
3. 참가비 : 25,000원
4.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접수 : <http://mara.kjmedia.co.kr>
나. 신청서 FAX접수 : 062-222-0195
다.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금남로2가 우동빌딩 16층)

주요운영안내

1. 참가지지급물 : 배낭(참가자 기록집 부착, 완주매달, 기록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2. 개인시상 : 풀·하프 1~45위 까지 시상
3. 특별상 : 원암부부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50명
4. 단체합가 특전 : 단체상 1~15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5. 원거리 참가자 버스운행 (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보훈청